

갈라디아서 서론

1. 저자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다. 그 이유는 명백한 내증(內證)과 외증(外證)에 근거한다. 저자가 바울이라는 성경의 내적 증거는 인사말(1:1)과 후미(5:2; 6:11), 자전적인 회고(1-2장)속에서 잘 드러난다. 이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행적과 일치한다. 그리고 외적 증거도 신뢰할 만하다. 초대 교회 교부들 즉 이레니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겐, 그리고 심지어는 말 시온을 포함한 당시의 이단들까지도 갈라디아서를 바울의 저작으로 인정하였다.

* 저자: 갈1:1

2. 수신자와 기록연대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1:2)과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3:1)로 드러난다. 과연 갈라디아인들은 누구였을까? 그들은 인종적으로 갈라디아인이었는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로마의 갈라디아 성에 살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인이라고 불리었는가? 등은 오랜시간 첨예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크게 수신자는 두 부류로 나누인다. 하나는 전통적인 입장으로 19세기까지 대체를 이루었던 북갈라디아설이다. 다른 하나는 20세기부터 램세이(Ramsay, W.M.)이가 전통적인 북갈라디아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남갈라디아설이다.

[북갈라디아설]

본 서신의 수신자들이 소아시아 북쪽 갈라디아 지방 (페시누스, 타비움, 안키라, 줄리오폴리스, 브루기아 등.)에 살았다고 보는 견해다. (행16:6; 18:23) 편지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마케도냐나 아가야에서 쓴 것으로 기록 연대는 대략 AD 53-57경으로 본다. 북쪽설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학자들은 라이트푸트(Lightfoot), 모팻(Moffatt), 리델보스(Ridderbos), 해리슨(Harrison)등이다.

[남갈라디아설]

그러나 램세이(1890년)는 북쪽설을 반대하고 **남갈라디아설**을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갈라디아인”을 언급할 때(갈1:2; 3:1) 바울은 갈라디아 성의 남부에 위치한 네 교회(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의도했다. (행13-14장) 그리고 “갈라디아 땅”을 언급할 때(행16:6; 18:23) 사도행전의 누가는 인종이 아니라 정치적인 행정구역으로서의 갈라디아(Galatia)를 의도했다”고 보았다.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들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 중에 방문한 갈라디아의 남부 도시들 즉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서신은 예루살렘 공회(행15장) 직전 안디옥에서 쓰였고 시기는 대략 AD 48-49년경이다. 이 설에 의하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최초의 서신이 되는 셈이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견해로 대표적인 학자들은 램세이(Ramsay), 버튼(Burton), 브루스(Bruce), 롱에네커(Longenecker)등이다. 참고로 필자도 남갈라디아설을 지지한다. *수신자: 행14:19-21

----→ 1차 선교 여행 지도

3. 서신의 목적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쉬고 있을 때,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할 당시부터 난동(행13:44-14:7, 19)을 부리던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급습하였다. 그들은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바울의 사도성과 그의 복음을 폄하하였다.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보다도 열등한 사도이며, 그가 전한 복음도 불완전한 복음이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직과 복음을 훼손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백성과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가르쳤다. 거기에서 언약백성의 신분과 표지인 할례와 모세율법을 보충하지 않으면 참된 언약백성이 될 수 없다는 다른 복음을 전하였다. 결국 믿음이 어린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주장에 미혹되어 자신들이 믿는 믿음 위에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첨가하는 배교의 소용들이 속에 휘말려 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존폐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여서 서

둘러 편지를 쓰게 된다. 서론(1-2장)에서 자전적 회고를 통해 자신의 사도성과 그의 복음이 사람들로부터 전수 받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직접 계시로 주어진 것임을 변호한다. 본론(3-4장)에서는 신자의 신분과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증거한다.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그 결과 성령을 선물로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바울 복음의 진수를 구약성경을 근거로 차분히 논술한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5-6장)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와 행위로부터 해방된 신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자유에로의 삶인가를 심도있게 진술한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할 때, 자칫 윤리와 삶이 없는 공허한 믿음으로 치부될 수 있는 위험성을 바울은 사전에 예방한다. 갈라디아서가 선포하는 참된 구원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갈5:6)과 함께 “성령으로 이웃을 섬기는 자유”(갈5:13)라고 말한다. 윤리와 삶의 열매가 없는 값싼 은혜의 시대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야말로 참된 은혜의 가치와 깊이를 드러내는 진실한 메시지이다.

4.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

이제 우리는 바울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가 처한 입장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사면초가의 형국이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 그를 힘들게 했던 교회 주변의 그룹은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갈라디아 교인’들이다. 이들은 율법(행위)과 복음(은혜)을 구별하지 못하는 영적 미성숙이 문제였다. (갈1:6; 3:1; 4:17; 5:2)

둘째는 예루살렘의 ‘열두 사도회’다. 이들은 ‘이방인 사도’ 바울과 아직 공식적(Officially)으로 복음의 일치(행15:11, 22-29)를 보지 못한 시점에 놓여 있었다. [남갈라디아서의 관점] 그들은 개인적인 만남으로 어느 정도 서로간의 일치를 보았지만(갈2:2, 9), 공식적으로는 예루살렘 전체의 사도들과 이방인 사도, 바울 간의 미묘한 온도 차가 여전히 공존하던 시기였다. 이는 아직 예루살렘 총회(행15장)에서 이방인의 구원과 할례의 문제가 결정되기 직전에 본서가 쓰였기 때문이다.

셋째는 ‘거짓 교사’들이다. 이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훼손하는 거짓 교사들이었다. (갈1:7; 2:4; 3:1; 4:17; 5:9; 6:12-13; 행15:1, 5, 24)

넷째는 수리아 ‘안디옥(Antioch)’이라는 교회 밖의 환경이다. ‘악한 세대’(갈1:4)로 불리우는 안디옥은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헬라 문화와 로마 황제 숭배가 강요되던 시대로,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적대적인 환경이었다. (행11:25-2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력과 싸우며 고군분투 하고 있었다. 교인들은 유대파와 이방파로 나뉘어 교리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었고, 교회 밖에서는 세속 문화와 황제 숭배가 호시탐탐 교회를 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기껏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사도들이었는데 이들과의 관계도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미묘한 관계여서 신속한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과연 사도는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 나갈 것인가? 이번 기회에 본 서를 깊이 공부해서 오늘의 교회와 삶에 유익한 교훈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자.

5. 개요

- 1-2장 자전적 회고 [바울의 회심과 회심 이후의 여정]
- 3-4장 교리적 교훈 [이신칭의의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 5-6장 윤리적 권면 [참된 자유의 사용과 공동체 윤리]

6. 적용하기

1. 바울의 신발을 신고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의 어려웠던 형편을 재 구성해봅시다.

바울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네 그룹’ 중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을 그룹은 어떤 그룹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갈6:13

2. 갈라디아서 공부에 앞서 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각자의 목표를 한번 세워보고 나누어봅시다.

그리고 아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 1) 인도자(목사님, 전도사님, 인도자)를 위해서.
- 2) 소그룹 식구들을 위해서.
- 3) 교회(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 4) 갈라디아서 공부의 목표를 위해서.
- 5) 본 과정을 성실히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도록. * 갈6:18

말씀 묵상의 즐거움

“묵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며, 그 즐거움으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일이다. 묵상은 하지 않으면 안되는 힘겨운 의무가 아니다. 오히려 그 기쁨을 알면 하지 않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그 즐거움이 우리가 다시 묵상의 여정에 나설 수 있게 하는 에너지다. 묵상은 우리를 묶는 구속이 아니라, 도리어 매인 데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자유의 행위다. 묵상이 즐거움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주의보다 더 고약한 신율법주의를 요구하신 셈이 된다. 우리가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묵상의 즐거움 때문이다. 묵상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다. 묵상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이기 때문이다.” (박대영 [묵상의 여정])